

# 전남체전·학생체전 통합 개최 추진

### 전남도체육회 체육진흥 워크숍

전남개발공사 설립팀 창단 유도  
도·시·군 직장팀 매칭 예산 필요  
지역대학 진학편 인센티브



10~11일 구례 KT수련원에서 경기단체 전무이사·직장팀 지도자 등 1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남체육 진흥 워크숍'이 열렸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전남체전과 학생체전을 통합하는 안이 제기됐다. 또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연계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실업팀의 창단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전남개발공사 설립팀 창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남도체육회는 10~11일 이틀간 구례 KT수련원에서 경기단체 전무이사·지도자·중장기발전계획 태스크포스팀·유관기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남체육 진흥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우수선수 육성 및 유출 방지 방안 ▲실업(직장)팀 경기력 강화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전남체전 효율성 극대화 ▲체육인 소통 강화 ▲경기시설 확충 및 훈련환경 개선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분임별로 논의했다.

본인도의 결과 이들은 "전남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남체전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4월 열리는 전남체전과 10월 학생체전을 통합해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남체전의 규모를 키우면 지역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선수들의 사기 제고와 학교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연계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실업팀의 창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업팀 창단은 전남도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광역단체 공기업들은 대부분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 출신 선수들이 지역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과 계약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역 우수선수들의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직장팀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남도의 예산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매칭을 요청하면 시·군도 예산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시·군 취업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급여 현실화, 체육인재육성 장학기금 조성 및 혜택 확대, 시합장·훈련장 일원화, 전남체전 우수선수 해외연수 등 포상 등도 제안됐다.

전남도와 전남도체육회는 앞서 지난 5일 전남체육 중·장기 발전계획 TF팀을 공식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TF팀은 전국체전 중위권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TF팀은 정책연구팀 13명을 비롯해 실무팀 4명, 자문단 5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정책연구팀은 김현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을 연구총괄 팀장으로, 박형정 전남도 스포츠

산업과 체육지원 담당 간사로 선임했다. 정책연구는 김갑선(목포대)·안민주(동신대)·김재필(순천대)·김민철(전남대 여수) 교수, 박길철 요트협회 전무이사, 김영래 목포시정 육상부 감독, 김성훈 초당대 농구부 코치, 김문선 순천대 양궁부 코치, 이호범 전남도 스포츠산업과 스포츠마케팅 담당, 권순용 전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관, 박재태 도체육회 운영부장 등이 담당한다.

이들을 지원할 실무팀은 김관길 전남도 스포츠산업과 주무관, 박재현 전남도교육청 장학사, 공갑석 도체육회 기획시설팀장, 정희진 도체육회 경기운영팀장 등으로 구성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자랑스러운 생활체육인상'

정건배 전 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정건배 전 전남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이 '자랑스러운 생활체육인상'을 수상했다.

전남도생활체육회(회장 이탁우)는 지난 9일 보성군 다비치콘도에서 2014 전남생활체육 유공자 시상식을 열어 전남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회원단체와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제8대 사무처장을 지낸 정 처장은 전남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정병욱 전남도생활체육회 이사와 신재준 무안군생활체육회장이 수상했다.

국민생활체육회장상에는 강종범 전남도생활체육회 직원, 박수경 함평군생활체육회 지도자, 이수열 전남게이트볼연합회장, 이일호 전남등산연합회장, 이승열 전남승마연합회장, 이남열 전남에어로빅스체조연합회장, 이수정(화순)·최윤희(구례)·김소진(고흥) 지도자, 목포주말리조트스프링클러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지사 표창은 문정현 전남도생활체육회 이사, 김광진 진도군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박지용 전남농구연합회장, 이용석 전남야구연합회 사무국장, 정태환(구례)·이환석(화순)·정은숙(영암) 지도자가 받았다.

전남도생활체육회장상에는 나주·강진·영암·영광군 생활체육회와 등산·탁구·테니스·패러글라이딩 연합회가 수상했고, 모범생활체육회상에는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호인 저변 확대에 기여한 순천·곡성·화순·장흥군 생활체육회와 게이트볼·야구·축구·풋살연합회가 수상했다. 또 강수영(담양)·곽정아(고흥)·윤태영(강진)·채상기(무안)·곽희동(진도) 지도자는 우수지도자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우리 경쟁엔 심포가 없다”

그들의 경쟁에는 심포가 없다. 오직 도돌이표만 있을 뿐이다.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의 '무한 기록 경쟁'을 바라보는 팬들의 눈은 언제나 즐겁다.

메시는 11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프누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의 2014-201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F조 조별리그 6차전 최종전에서 0-1로 뒤지고 있던 후반 19분 동점골을 터트리며 바르셀로나의 패배를 막아냈다.

바르셀로나는 메시의 동점골에 이어 네이마르와 루이스 수아레스가 득점 행진에 동참하며 3-1로 역전승을 거두고 조1위로 16강 진출의 기쁨을 맛봤다.

이날 특별한 점은 메시의 동점골이다. 메시는 이날 골로 UEFA 챔피언스리그 역대 개인 통산 최다골 기록을 75골로 늘렸다. 물론 기존 기록도 자신의 것이었다.

지난달 6일 아약스와 조별리그 4차전에서 혼자서 2골을 터트린 메시는 라울 곤살레스의 UEFA 챔피언스리그 역대 개인 통산 최다골 기록인 71골과 동률을 이뤘다.

메시는 26일 아포엘(키프로스)과의 조별리그 5차전에서

호날두	프리메라리가 골 기록 경쟁	메시
29 (6시즌째)	나 이	27 (11시즌째)
72 (개인통산 2위)	챔스리그골	75 (부동의 1위)
200	통산 골	256
23 (1위)	헤트 트릭	21 (3위)

누가 먼저 은퇴하느냐가 승패 판가름...메시, 나이 어리지만 잦은 부상 걸림돌

헤트트릭(3골)을 작성하며 라울 곤살레스를 제치고 UEFA 챔피언스리그 역대 개인 통산 최다골(74골) 기록자로 우뚝 섰고, 이날 또 한 골을 추가하며 최다골 기록 경신 행진을 이어나갔다.

메시의 특징이 더욱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전날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UEFA 챔피언스리그 개인 통산 72골을 넣으면서 라울 곤살레스를 제치고 역대 개인 통산 득점 2위에 올랐다는 것이다.

호날두가 추격을 해오자 메시가 곧바로 달려나면서 둘의 격차는 3골로 유지됐다. 하지만 메시로서는 3골 차이에 안심할 수 없다. 호날두는 언제나 '멀티골'을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여서다.

호날두는 역대 프리메라리가에서 개인 통산 23회의 헤트트릭을 달성하며 이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메시는 21개로 3위에 올라 호날두를 따라가는 처지이다. 이 기록 격차가 크지 않아 역시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다만 프리메라

리가 최다골 기록은 현재로서는 호날두가 메시를 따라잡기에 쉽지 않다.

메시는 지난 8일 에스파뇰과의 정규리그 14라운드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역대 프리메라리가 개인 통산 최다골 기록을 256골로 늘렸다.

지난달 23일 세비야와의 12라운드에서 혼자 3골을 터트린 메시는 프리메라리가 개인 통산 253골을 기록, 1955년 델모 사라가 작성했던 기존 최다골 기록인 251골을 훌쩍 넘어섰다. 이후 18일 만에 또 한 번 정규리그에서 헤트트릭을 앞세워 최다골 기록(256골)을 경신했다.

반면 호날두는 프리메라리가 개인 통산 기록이 200골이다. 메시와는 56골의 차이가 벌어져 있다.

하지만 메시는 프리메라리가에서 11시즌째이고, 호날두는 6시즌밖에 되지 않았다. 경기당 득점을 따지면 호날두(1.12골)가 메시(0.88골)를 앞선다.

결국 프리메라리가 최다골 기록 승부의 마지막 승자는 누가 먼저 은퇴하느냐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7살의 메시가 29살의 호날두보다 나이에서는 유리하지만 잦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연립뉴스